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2/4분기 경제 성장률 1%에도 못 미쳐
- DDA 무산으로 WTO 무역 체제 후퇴

경영 노트

- IBM의 지속적 변신

사회 트렌드

- IT 트렌드 관련 신조어
- 신인류 '퍼블리즌'이 뜬다

저널 브리프

- 식지 않는 중국 경제

洗心錄

- 전체(totality)를 보는 눈

□ 2/4분기 경제 성장률 1%에도 못 미쳐

-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4/4분기 전기비 1.6%를 고점으로 올해 1/4분기 1.2%에 이어 0.8%로 하락함
 -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1/4분기 1.3%에서 2/4분기에 0.9%로 하락하였으며, 건설투자도 같은 기간 0.6% 증가세에서 3.9% 감소세로 전환되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이와 같은 소비, 투자 부진으로 내수의 성장 기여율은 1/4분기 0.9%p에서 0.3%p로 낮아진 반면, 국민계정상 재화 수출이 6.3%의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같은 기간 -0.3%p에서 0.4%p로 증가함
- 하반기에는 미국 및 중국 경기 하강, 환율 하락세, 고유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 경기마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외수 동반 부진에 따르는 성장률 하락의 가속화가 전망됨

□ DDA 무산으로 WTO 무역 체제 후퇴

- 5년 여간 지연되었던 DDA(Doha Development Agenda, 제4차 세계무역기구다자간 무역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G6 각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의 FTA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이번 DDA 협상 결렬은 미국의 농업 보조금 삭감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EU,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과의 이견 차가 좁혀 지지 않았던 데에 주된 원인이 있음
 - 이는 그동안에도 세계 무역 질서가 실질적으로 FTA 중심의 양자간(bilateral) 협상 체제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외형상으로도 WTO 중심의 다자간(multilateral) 협상 체제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다자간 무역 분쟁 조정 기능의 약화로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 강화, 지역주의 확산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교역국들과의 FTA 체결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 IBM의 지속적 변신*

- (개요) 최근 IBM은 스스로를 IT기업이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 컨설팅 및 서비스 분야 등으로 주력 업종의 변신을 추진
 - IBM은 과거 전통적 주력 사업 분야인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의 매출 비중이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기업 컨설팅 및 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비중이 급신장하고 있음
 - 1992년 53%, 1998년 44.2%였던 하드웨어 부문 매출은 2005년 26.7%로 줄어든 반면, 기업 컨설팅 및 서비스 분야의 2005년 매출 비중은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

- (내용)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IBM은 주력 사업 분야의 변신을 통한 지속 성장을 지향
 - 최근 기업들의 IT 수요가 단순히 하드웨어의 구매에서 IT전략의 수립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에 관한 IT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IBM은 2004년 PC사업 부문을 중국 레노버社에 매각하고 PC사업에서 손을 떼 다음, 기업 경영에 관련된 모든 지식, 인력, 장비 등의 서비스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
 - 과거에도 IBM은 고객 수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출퇴근 기록계, 전산용 천공기, 전자계산기, 컴퓨터 등으로 끊임없이 주력 분야의 변신을 도모하면서 성장을 추구해 왔음

- (시사점)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 기업만이 생존 가능
 - 고객 수요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의 지속적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21세기형 성장 기업의 조건임
 - 이에 따라 기업은 글로벌 경제의 확산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보조적 기능은 아웃소싱과 업무제휴 등을 활용하는 효율적 대응 전략이 필요

* 주간조선(2006.7.8)의 기사를 편집, 재구성한 것임

□ IT 트렌드 관련 신조어

- SK커뮤니케이션즈 연구소에 의하면, 올 하반기에는 IT 트렌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조어가 IT 시장을 풍미할 것으로 전망함
 - (Rec족) 녹음, 녹화라는 뜻의 “Recording”에서 나온 단어로써,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이 엿보이는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을 말하며,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동영상의 생산자들임
 - (인포러스트, Infolust) 정보를 의미하는 ‘information’과 ‘강한 욕망’을 뜻하는 ‘lust’의 합성어로서, ‘정보에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 유명 블로거들이나 페이퍼 발행인들을 의미
 - (프로튜어, Proteur) ‘professional’과 ‘amateur’의 합성어로서, 전문가가 아닌데 자신만의 특기를 살려 웹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을 말함
 - (하비홀릭, Hobbiholic) ‘hobby’(취미)와 ‘holic’(‘광적인 몰두’를 의미하는 접미사)의 합성어로서, 취미 활동을 마니아적으로 몰두하는 것을 말함

□ 신인류 ‘퍼블리즌’이 뜬다

-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을 즐기는 인터넷 시대의 신인류 ‘퍼블리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美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함
 - 퍼블리즌(Publizen)은 공개(publicity)와 시민(citizen)을 합성한 신조어
 - 인터넷 사용자를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인 ‘네티즌’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공개하는 데 적극적인 네티즌들의 경향에 초점을 맞춘 개념
 - 이들 퍼블리즌은 나이, 직업, 주소 등 신상정보는 물론 연애 경험, 주량, 좋아하는 영화, 심지어 몸에 있는 문신의 위치까지 자신에 관한 것을 속속들이 인터넷에 공개하며, 이를 위해 디카, 웹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프로그램 등의 신기술을 적극 이용함
- 점차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쇠퇴하고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지구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임
 - 향후에는 할리우드 스타보다 유명한 퍼블리즌이 등장할 수 있으며, ‘공개적인 것이 아니면 실제로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임

□ 식지 않는 중국 경제*

- (지속되는 고성장) 중국 경제가 2006년 2/4분기에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경기 과열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11년 만에 최고 성장률 기록) 중국은 2006년 2/4분기에 11.3% 성장을 기록, 1995년 1/4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상반기 성장률도 상향 조정: 중국 국가통계국은 2006년 2/4분기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동년 상반기 성장률도 10.9%로 상향 조정함
 - 긴축정책 실패: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에 이르는 등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전망) 중국 정부는 경기 과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가능) 경기 과열 현상 억제를 위해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나, 이는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2004년 금리 파동: 중국 정부는 2004년 10월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대폭 인상을 강행했으나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속되는 등의 경향이 있음
 - 부실 금융권의 동요와 유동성 제약: 부실채권 정리가 완결되지 않은 중국 금융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급격한 대출 억제는 시중 유동성의 제약을 초래할 것임
 - (위안화 가치 상승 가속화와 문제점) 따라서 경기 과열 현상 억제를 위해 중국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임. 이 역시 수출 경쟁력의 급락 등 경제 발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점진적인 조정을 통한 연착륙 유도) 결국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 조정 및 금리 인상 등 여러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되,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7.31)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전체(totality)를 보는 눈

어떤 원리가 부분적으로는 성립해도 전체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성립하면 전체적으로도 성립한다고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이를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축구 경기 관람석에서 나 혼자 일어서서 보면 잘 보인다. 하지만 모든 관중이 일어서면 모두가 앉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다리만 아플 뿐이다.

조기 정년퇴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외비 등으로 아이 하나 키우는 비용이 엄청나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감아 먹는다.

모든 개개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여 농작물(배추) 수확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배추 농사가 너무 풍작을 이루게 되면 배추 가격은 폭락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은 감소한다.

이처럼 개체로서는 유리한 선택이더라도 모든 구성원이 같은 선택을 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조직도 마찬가지다. 구성원 개인들이 능력이 있다고 부서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각 부서들이 역량이 있다고 해서 전체 회사가 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즉 부분의 합리성이 전체의 합리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는 또다른 요소의 투입이 필요하다. 부분을 예리하게 분석하되 전체를 종합하는 통찰력이다. 전체(totality)를 보는 눈, 모든 리더의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다.**

“행복한 사람이 방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방안에 촛불이 켜지는 것과 같다.”

- 랄프 왈도 에머슨(1803~1882) : 미국의 사상가, 시인